

---

# 해 외 연 수 보 고 서

---

2009. 7. 5 ~ 7. 14.

프랑스 도시탐방

(파리, 릴, 리옹, 마르세이유)

---

설계연구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09. 8.

출장자
심경미 연구원

## □ 목 차

<b>I . 연수 개요</b>	<b>1</b>
<b>II . PARIS</b>	<b>2</b>
1. ZAC Paris Rive Gauche 파리 13구 파리 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	2
2. Pavillion de l’Arsenal (아스르날 건축 전문갤러리)	6
3. Parc de Bercy	8
<b>III . LILLE</b>	<b>11</b>
1. METROPOLE COMMUNAUTE URBAINE 릴 메트로폴 도시 연합)	11
2. EURALILLE	12
<b>IV . LYON</b>	<b>16</b>
1. Lyon Parc Auto	16
2. BAS-PORTS DE LA RIVE GAUCHE DU RHONE	19
3. CERTU	21
<b>V . MARSEILLE</b>	<b>22</b>
1. UNITE D’HABITATION A MARSEILLE	22
2. 기타 : 마르세이유 수변지역 개발 등	25
<b>V . 구독 자료 목록</b>	<b>26</b>

# I. 연수 개요

## 1. 연수 개요

- 출 장 자 : 설계연구실 심경미 연구원
- 출 장 지 : 프랑스(파리, 릴, 리옹, 마르세이유)
- 출장기간 : 2009. 7. 5. - 2009. 7. 14. (8박10일)

## 2. 연수 목적

- 프랑스의 도심 재생과 공공 디자인의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 만들기의 경향과 성공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기획한 답사로서, 축적된 역사성이 현대성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프랑스 대도시의 도시 공간의 탐방을 통해 도시, 건축, 조경, 시각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유용하고 의미있는 장소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프랑스의 도심 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 만들기의 경향과 성공 사례를 이해하고자 함
- 도시의 마지막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 실행지인 파리 리브고슈 구역과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에 따른 도시 공공공간 정비의 계획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파리(Paris), 북유럽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자 유라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시설계의 유형과 건축의 모델을 제시한 릴(Lille), 유럽 최초로 도시전체에 걸친 공공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활성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리옹(Lyon), 지중해 연안의 열정의 도시로 워터프런트 계획과 도심 재생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마르세이유(Marseille).

## 3. 연수 일정

일자	활동지역	방문지 및 업무수행 내용
7. 5.(일)	출발	
7. 6.(월)	파리	SEMAPA 방문, ZAC Paris Rive Gauche 견학 PAVILION DE L'ARSENAL(아르스날 파리 건축, 도시갤러리) WILMOTTE(공공디자인 갤러리 및 건축 및 도시설계 사무소) 견학
7. 7.(화)	파리-아미앙	Internationale Univesitaire de paris 견학 아미앙 시내 견학, 릴 도착
7. 8.(수)	릴	EURALILLE 견학과 SAEM 기관 방문 LILLE METROPOLITAN COMMUNAUTÉ URBAINE(릴 메트로폴) 방문
7. 9.(목)	이동 후 리옹	LYON PARC AUTO 방문, Presquile 일대 견학
7.10.(금)	리옹	GRAND LYON 방문, CERTU(도시, 공공건물, 교통 국가연구소) 방문 Bas-ports de la rive gauche de Rhone 수변공간 견학
7.11.(토)	아비뇽-마르세이유	아비뇽 역사지구 견학, 마르세이유 도착
7.12.(일)	마르세이유	EUROMEDITERRANEE, CENTRE VILLE, UNITE D'HABITATION A MARSEILLE 등 견학
7.13.(월)	이동 후 파리	Parc de Bercy 견학
7.14.(화)	도착	

## II. Paris 파리

### 1. ZAC Paris Rive Gauche (파리 13구 파리 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

Paris Rive Gauche(파리 리브 고슈) 사업은 1991년 파리의 주도로 시작된 파리의 강서지역 일부 지대, 즉 프랑스 국립도서관 주변의 오스테를리츠역과 마쎈 거리 사이 일대를 재개발한 사업으로 SEMAPA(파리 개발을 위한 민관합작개발공사)는 계획의 구상과 구체화, 공공시설 계획, 타기관과의 공조 등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였다.

위치 및 면적	: 파리시 13구, 센강에 면한 지역, 130 ha
사업주체	: SEMAPA (파리시 민관합작개발공사)
사업성격	: 센강변 산업용지 재생을 위한 복합용도개발
프로그램	: 주거 (1/3 임대주거, 1/3 반임대주거) 업무, 상업, 공공시설 - 프랑스국립도서관, 대학, 초등학교 등 -, 녹지 공간
ZAC 지정	: 1990년 <sup>1)</sup>

#### 1) 개요 및 배경

대상지역은 남쪽으로는 파리-오스테릴리츠역(Gare de Paris-Austerlitz)에서 파리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철로, 북쪽으로는 센강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왔음. 따라서 13구는 센강에 면해 있으면서도 이 지역 때문에 센강과 관계를 맺지 못하였음. 이에 파리시는 도시설계원(APUR)을 중심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 ZAC(협의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지구개발계획(PAZ)이 수립되었고, 이후 이 지역은 주거, 업무, 상업, 문화 시설이 입지하는 복합용도 지역으로 변모함

파리 13구는 18세기 초 (1724년) 처음 구획 정비가 시작된 이래, 19세기중반(1860)에 와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됨. 그러나 현 13구 재개발 지구는, 13구의 최 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몇 년 전 만 해도 폐쇄된 창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폐철로, 하향일로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만이 있던 미개척지였음. 게다가 이곳의 소규모기업들이 파리 주변으로 점차 이동해 감에 따라 이 지대는 거의 황무지가 되어 있던 상태였음. 이에 80년대 초, 파리시는 나머지 13구에서 따로 떨어져 점차 쇠퇴해가고 있던 이 광대한 13구 일부 지대 처리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함

파리시는 이 지역의 다양한 부지들을 사들여, 파리 도시 개발 사상 가장 넓은 지역에 해당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세움. 총 약 130헥타르 중에서 10헥타르 정도는 녹지로 조성되고, 6만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해지며, 오천여 개의 아파트에 만 오천명 정도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 시설, 즉 학교와 공원, 스포츠와 문화시설, 식당가에 상점, 대학들과 새로운 역 등이 들어서면서 그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이 지역을, 활기를 띠는 파리의 새로운 동부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도시계획은 1980년 6월부터 계획되어, 행정적으로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고 실제 공사에 들어간 것은 1994년 국립도

1) 대상 지역은 1990년 ZAC Seine Rive Gauche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명칭이 Paris Rive Gauche로 변경되었음



서관 주변에 첫 주거지들을 건설하면서 시작됨



### 3) SEMAPA (Société d'Economie Mixte d'Aménagement de Paris)

협의정비지구 개발의 주체는 파리시이며, SEMAPA(파리 개발을 위한 민관합작개발공사)는 계획의 구상과 구체화, 공공시설 계획, 타기관과의 공조 등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을 담당함  
SEMAPA는 파리시(주식의 57% 소유), 프랑스 정부(5%), 일 드 프랑스(5%), RIPV(파리 주택 공사, 10%), SNCF(프랑스 국립 철도청, 20%) 기타(5%)의 자본으로 파리 도시개발을 위해 1985년에 만들어진 민관혼합회사로서 13구의 시장인 Serge Blisko이 수뇌에 있으며 파리 개발 관련 지역의 모든 법적 기술적 문제의 책임을 담당할 50여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음



SEMAPA 방문 및 리브고슈지역 모델

### 3) PAZ (Plan d'Aménagement de Zone : 지구개발계획)

ZAC Paris Rive Gauche에 대한 PAZ(지구개발계획)는 비슷한 시기의 다른 계획에 비해 매우 유연하게 작성되었다. ZAC Reuilly의 경우 건물의 높이와 대략적인 형태까지 제시되었으나, 파리리브고슈에서는 전반적인 높이 제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시에 그쳤으며, 블록 내부 가로는 PAZ 이후 각 지구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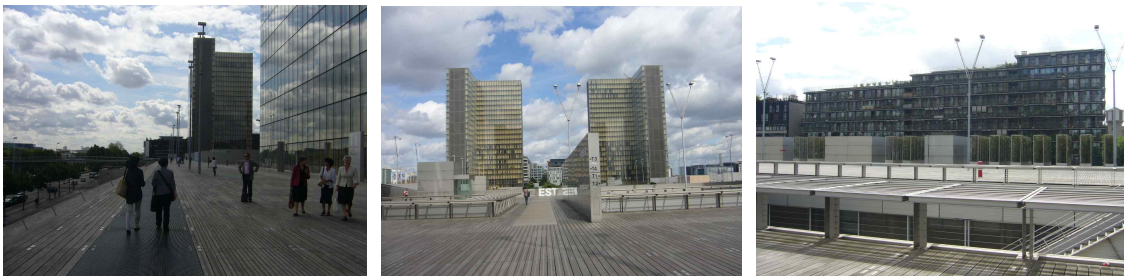
ZAC Paris Rive Gauche의 PAZ(지구개발계획)

#### 4) ARCHITECTURAL COORDINATION

1980-90년대 파리시에서 ZAC으로 지정되어 개발된 지역에 대한 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건축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다. 파리리브고슈의 경우 여러 개의 구역(Quartier) 별로 코디네이터가 지정 혹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들은 각 지구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과 더불어 내부 가로체계 구축, 건축 유형과 형태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구역별로 정체성과 통일성이 조화된 경관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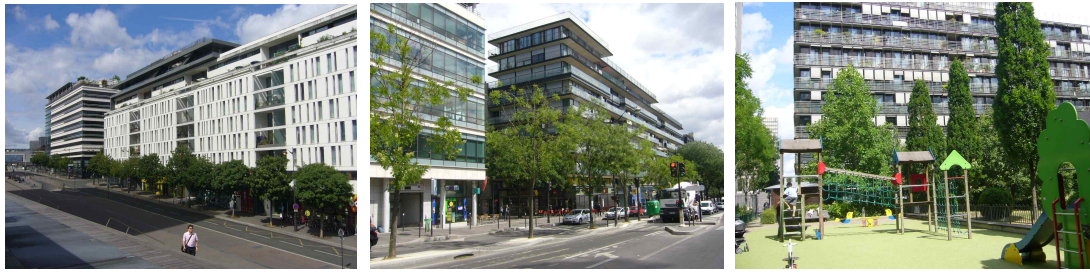
근대건축운동에 근거한 기능주의적 도시계획, 기존 도시구조를 부정하는 전면적인 재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에서는 도시경관과 사회적 통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77년 건축의 공공성을 천명한 ‘건축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건축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개성강한 민간 건축가들의 다양한 창조 행위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에서 도시·건축가를 지정하였으나, 이후 공모 방식에 의해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코디네이터는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유형과 도시구조의 관계 설정을 통해 적절한 도시형태를 제안하고, 이는 주요 배치, 건물의 높이 및 형태 제한, 저층부 계획 등으로 구체화된다.

건축코디네이터 도입으로 다양한 건축에 대한 조율을 통해 통일성 있고 조화로운 경관 창출, 공공과 민간의 중간자 역할 수행



리브고슈개발지역 - 파리 국립도서관





리브고슈개발지역 - 폴비악지구



리브고슈개발지역 - 마세나지구



철도역과 세느강과 높이 차를 가지는 리브고슈

보행도로



리브고슈와 베르시를 연결하는 다리

베르시에서 바라본 리브고슈지역

## 2. Pavillon de l'Arsenal (아스르날 건축 전문갤러리)

### 1) 개요

1988년에 발족하여 프랑스 건축연구소(IFA)와 함께 출판, 교육 등 건축도시 연구센터로 기능하며 두 기관의 조직적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프랑스 건축의 정체성 연구, 전시, 기록보관 등을 꾸준히 수행

- 1878년 수채화 수집용 사립 박물관으로 설계
- 1986년 10월 파리 시장 자끄 시락이 파리의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홍보, 자료정리 및 전시 센터의 개설을 결정하였음.
- 개조한 19세기 후반의 철제 구조물에 설치되어 1988년 12월에 일반에 개관된 독립된 비영리 단체

### 2) 운영 및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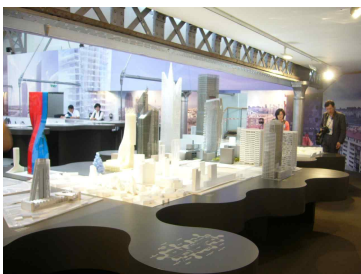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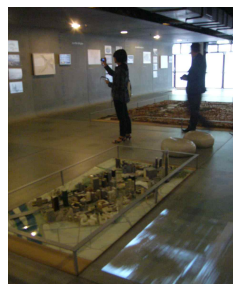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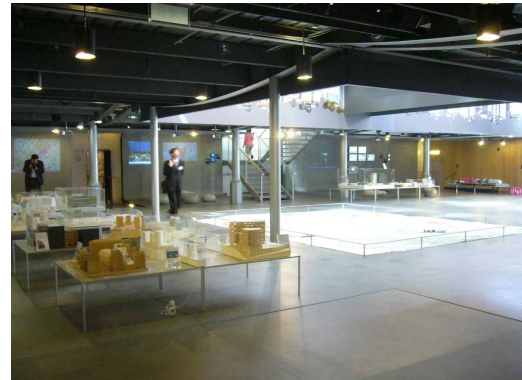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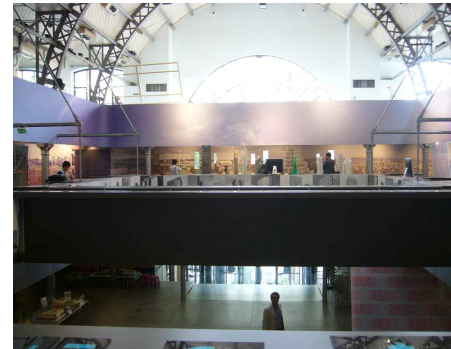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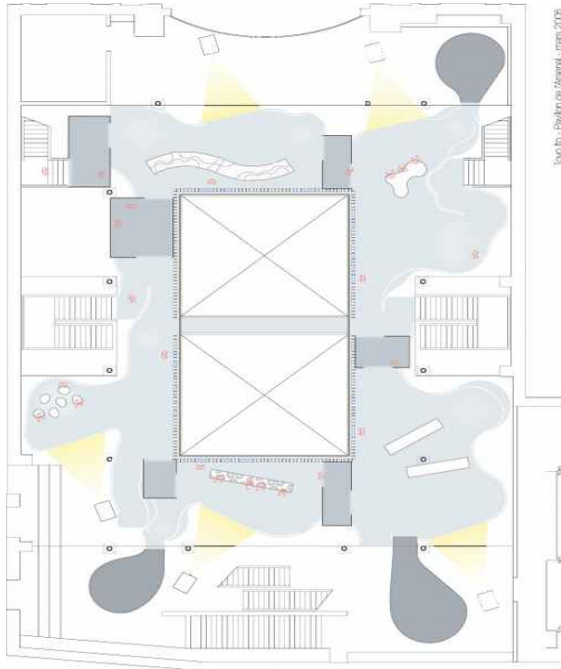
- 직원은 20명으로 전시과에 건축가 4명, 자료과에 3명, 홍보과에 3명, 그 외 관장, 부관장, 회계, 비서 등으로 구성됨. 연간예산 40억원으로 예산지원은 파리와 10여개의 파리시 민관합동 도시개발회사(SEM) 그리고 출판 및 전시관 속 운영에 의한 자체수입으로 충당
- 아스르날관은 파리의 도시계획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파리의 발전과정, 현재의 변하고 있는 모습, 미래의 파리를 예측하고 제시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중 및 건축에 관계하는 전문가들에게 전시, 자료, 정보 등을 전달해 주는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3) 갤러리 구성

- 상설 전시는 파리의 변화 과정을 연속적인 도시의 경계에 따라 보여주고, 40m<sup>2</sup> 규모의 시 전체 모형이 첨단의 각종 시청각 기제에 의하여 전시되고 있고, 기획 전시는 주제별로 프랑스와 외국 도시의 건축 및 도시계획 전시
- 1층에 상설전시실 800m<sup>2</sup>, 2층에 기획전시실 600m<sup>2</sup>, 3층에 기획전시실 200m<sup>2</sup>, 자료센터(파리시 관련 간행물, 사진소장, 24석의 열람석), 회의실을 갖추고, 전시 및 홍보, 강연, 출판, 현대건축자료 수집, 서적판매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 기획전시는 연간 3개의 전시가 기획되는데, 주제별로 프랑스와 외국도시의 건축 및 도시계획을 전시, 주요 소장 자료의 하나로 1940년부터 현재까지의 파리의 도시와 건축 관련 사진 7만장을 들 수 있음

규모	1,600m <sup>2</sup> (3층)	
전시관	1층 상설전시관	800m <sup>2</sup>
	2층 기획전시실	600m <sup>2</sup>
	3층 기획전시실	100m <sup>2</sup> ×2
기타	자료센터, 사진도서관, 비디오실 구비	
	파리 도심부 모형 : SCALE 1/500, SIZE 4m×3m	





### 3. Parc de Ber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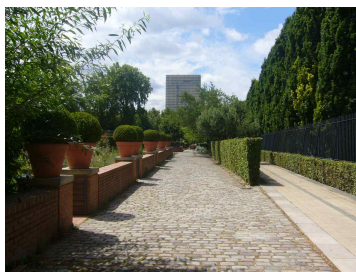
베르시는 프랑스 파리 동남부 12구 센 강변의 오른쪽 지역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있는 파리 리브고슈 지역 맞은편 지역이다. 도시 내부에는 프랑스 대장성(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과 베르시 빌라주(Bercy Village), 산책로가 잘 구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베르시 공원(Parc de Bercy), 다양한 운동경기 및 해외 유명 음악가들의 공연이 자주 열리는 대형 경기장 팔레 오니스포르 베르시(Palais Omnisports Bercy) 등이 자리하고 있다. 중세시대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유명 포도원들이 자리하여 부유한 동네였던 베르시는 19세기 거대한 와인 창고들이 들어서면서 프랑스와인 거래의 중심지였으나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다. 예전에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의 외곽지역으로 여겨졌었던 베르시는 포도주 창고였던 곳을 도시개발에 의해 계획적으로 주거와 쇼핑, 관광, 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포도주 창고가 있던 지역임을 알려주는 포도밭과 창고



전철역 개설



베르시 공원



베르시 맞은편 리브고슈 지역

#### □ BERCY VILLAGE

베르시 빌라주(Bercy Village)는 19세기의 대형 와인 저장고들을 개조하여 레스토랑, 와인바, 상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이다. 기존 건물을 보수하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효율적인 개발이었으나, 2001년 완공된 이후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베르시의 역사적 특색을 잘 활용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상가 및 식당 거리라는 평도 얻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과거의 와인 저장 창고들이 빌라주의 큰 길 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서 있다. 바닥에는 와인을 나르던 레일이 과거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어 흥미를 자아낸다. 입구에는 최첨단 영화관이 세워져 있으며 바로 옆에는 개성있는 조각들과 아름다운 호수로 꾸며진 베르시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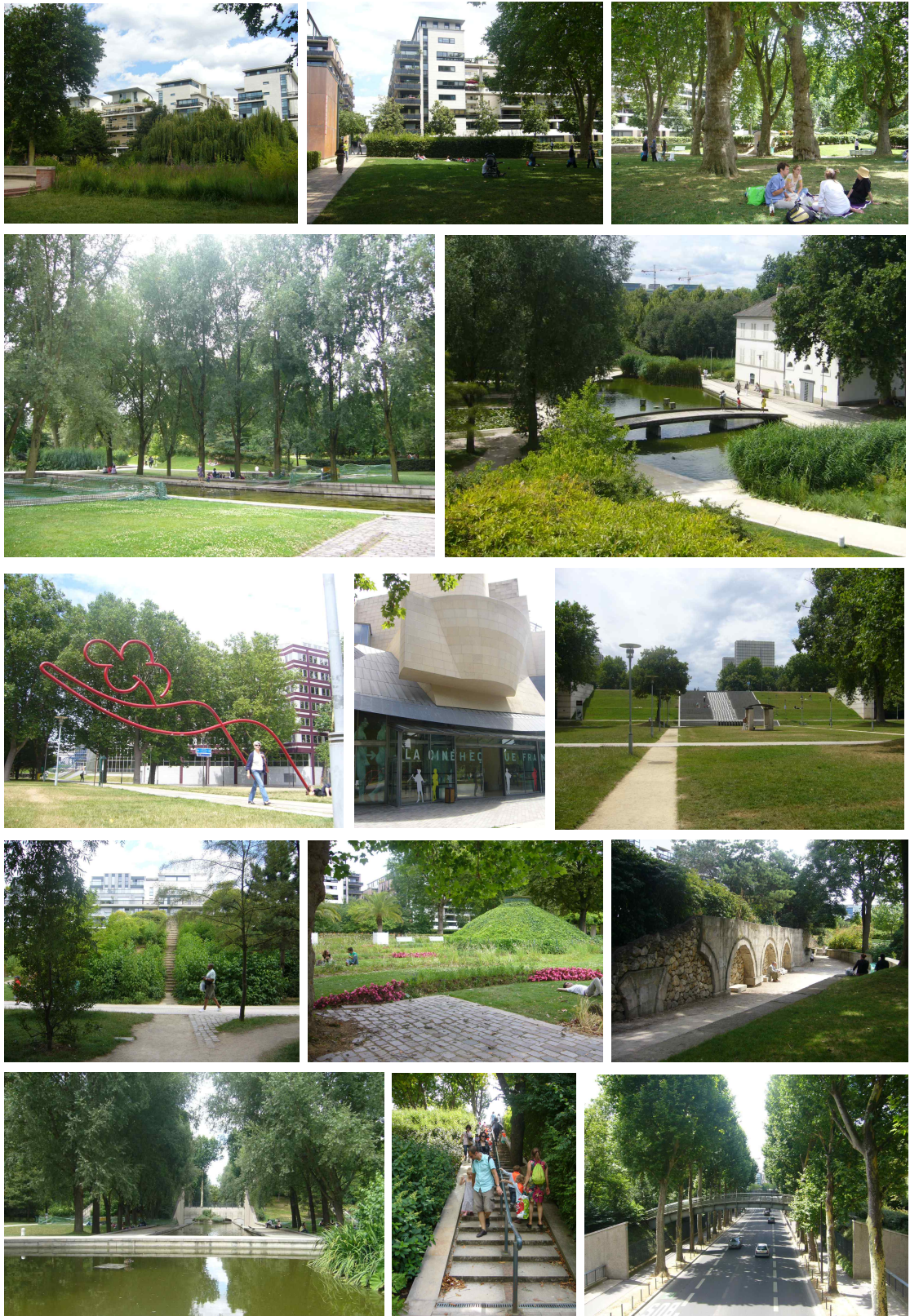


베르시 주거단지



포도주창고를 개조한 상가





베르시 공원 전경



### Ⅲ. Lille 릴

#### 1. METROPOLE COMMUNAUTE URBAINE(릴 메트로폴 도시 연합)

정비 LILLE-유럽역은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인구 110만 명의 있는 릴르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리와 런던, 브뤼셀, 암스테르담 등 북유럽 대도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철도인 TGV 개통 이후 유럽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GV 릴르 유럽역은 1994년 TGV 북유럽선의 개통에 따라 기존 재래선 철도역인 릴르 플라드르역 인근에 개설되었으며, 릴르 플라드르역 주변지역은 대규모 미개발토지가 많이 있어 도시 개발의 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서, 릴르시에서는 TGV 릴르 유럽역 정차 결정 후 이를 도시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역세권 정비를 추진하였다.

릴르시는 역세권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유라릴 메트로폴이라는 민간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에서는 TGV 운행에 따른 릴르시의 역할정립과 이를 위한 역세권 정비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였다. 유라릴 사업은 도시정비지구를 지정하여 추진되었는데, TGV 역사건물 신축 등 철도역 관련사업과 역주변의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 세 가지 핵심사업으로 구성되었다.

- 1967년에 설립
- 1970년 2월 4일 3개의 시를 통합
- 1977년 LILLE과 HELLEMMES 합병
- 1999년 12월 13일 릴 메트로폴 도시 연합으로 명칭 변경
- 2000년 LILLE과 LOMME 합병



## 2. EURALILLE

릴에 새 노선이 마련되면서 기존의 릴 플랑드르 역을 옆에 두고 새 역을 건설해야 했는데, 두 역 사이 15,000여 평의 빈 땅이 자칫하면 흉물로 남을 위기였다. 이때 유라릴메트로폴(Euralille-Metropole)이라는 민관합자 개발회사가 설립되었고, 유라릴메트로폴은 8명의 건축가를 초대했다. 유라릴 메트로폴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디자인 보다는 이 도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요구하였고, 최종 네덜란드의 건축가 램 쿨하스가 총괄 책임건축가로 선정되었다.

유라릴은 철도역이 아니라 도시 릴을 위한 계획이었으며, 기존 도심의 상권을 고려하여 유라릴 상가에 입주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도시의 상가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으며, 건물의 질적인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 공무원, 언론인 심지어 철학자도 포함된 위원회가 매월 모여 건축가를 선정한 뒤 건물의 질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전략을 만들어 나갔다.

역 인근에는 대형 문화공간 그랑팔레가 계획되었으며, 2004년 유럽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유럽 연합의 기금으로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도시 남쪽에 새로운 문화시설 메종폴리를 세웠다. 철도가 생기를 불어넣은 도시 릴은 이제 시민의 참여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되었다.



## / 철도가 가져다준 도약의 기회

릴에는 두 개의 거대한 역이 있다. 옛 역인 릴 플랑드르와 새 역인 릴 유럽. 유라릴은 이 두 개의 역 사이에 있던 1만5000여 평의 황무지에 새롭게 세워진 복합공간이다. 상가, 아파트, 사무실, 학교가 망라된 이 복합공간은 한때 프랑스 최고의 실업률로 고민하던 릴에 5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었다. 자본금의 100배에 이르는 투자가 유치됐다. 유라릴의 성공에 힘입어 현재는 유라릴 인근의 터를 흡수해 3만 평 규모의 추가 공간을 짓는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릴의 주 산업이었던 광업은 1970년대 들어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직물산업도 버티기 힘들었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필사적으로 덩벼드는 한국 같은 후발 경쟁국들의 도전에 버티 낼 수가 없었다.

릴의 공장들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생존 대안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도시에 형성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부풀어 갔다. 릴은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갔다.

1973년 취임한 피에르 모로아 시장은 도시를 살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28년을 재임한 그가 찾은 답은 '철도'였다. 릴은 프랑스 벨기에 영국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한가운데 있었다. '삼국을 연결하는 허브 역이 된다'는 도시 발전 전략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테제베(TGV)노선 계획은 이미 릴보다 더 서쪽의 도시 아미앵을 거쳐 해저터널로 영국과 연결되는 것으로 수립돼 있었다. 게다가 터널의 위치 선정은 영국이 동의해야 하는 국제적인 계획이었다. 결국 릴을 통과하는 노선이라야 더 많은 국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안에 영국이 설득됐다. "당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우리의 구세주였다"고 릴 시의 공보관은 회고한다.

## / 환승지에서 목적지로

기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들어 냈다. 새 노선이 마련되자 기존의 릴 플랑드르 역을 옆에 두고 새 역을 건설해야 했다. 두 역 사이 1만5000여 평의 빈 땅이 자칫하면 흉물로 남을 위기였다.

이때 유라릴메트로폴(Euralille-Metropole)이라는 민관(民官) 합자 개발회사가 설립됐다. 유라릴 메트로폴은 8명의 건축가를 초대했다. 그들에게 개발 회사가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이 도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었다. 네덜란드의 건축가 램 쿨하스가 총괄 책임건축가로 선정됐다. '유라릴'은 철도역이 아니라 도시 릴을 위한 계획이었다. 이 초대형 상가를 살리겠다고 기존 도심의 상권을 황폐화시킬 수는 없었다. 유라릴 상가에 입주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도시의 상가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 유라릴메트로폴은 건물의 크기뿐 아니라 건물의 질적인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시민 공무원 언론인 심지어 철학자도 포함된 위원회가 매월 모여 건축가를 선정한 뒤 건물의 질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전략을 만들어 나갔다. 릴은 점차 환승지가 아닌 목적지로 탈바꿈해 나갔다. 역 인근에 대형 문화공간 그랑팔레가 완성됐다. 그랑팔레의 전시장 세 홀에는 각각 파리홀, 브뤼셀홀, 런던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차역에 도착한 사람들은 화려하고 우아한 유라릴의 상가를 걸어 다니다 자연스럽게 도시 내부의 문화공간으로 흘러들었다.

T소득층이 모여 사는 도시 남쪽에 새로운 문화시설 메종폴리를 세웠다. 폐허였던 맥주공장 직물공장이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 전시회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철도가 생기를 불어넣은 도시 릴은 이제 시민의 참여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릴은 프랑스에서 지방세율이 가장 높은 시로 꼽힌다. 후임 시장에게 자리를 넘긴 불도저 시장은 말한다. "나는 시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나는 마술사가 아니다. 변화는 투자를 필요로 한다."

릴=서현 교수·한양대 건축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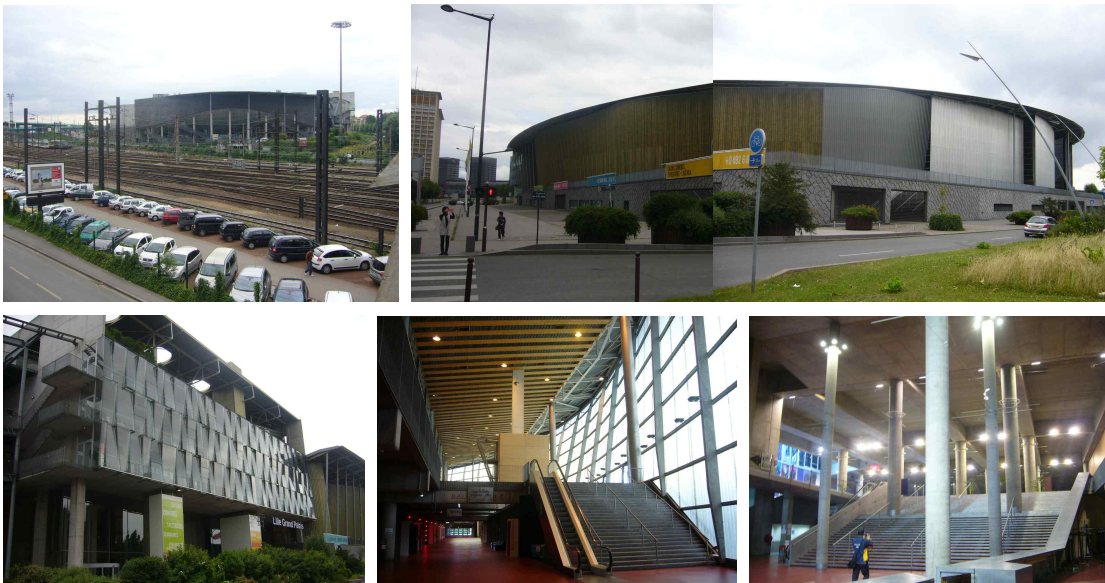


/ 유럽 역의 역세권 개발 : 유라릴(Euralille)

- 프랑스 북부에 있는 릴시는 인구가 약 17만명이지만, 주변 도시권의 인구는 115만명이고, 인접한 벨기에의 50만명까지 포괄하는 대도시권으로 형성되어 있음. 릴 ~ 파리 1시간, 릴 ~ 브뤼셀 25분 소요
- 국내용 및 국제용 고속열차 정차역 두개의 사이에 빈 공간에 지자체, 철도청, 개발회사 등이 협력하여 유라릴을 개발하여, 파리 ~ 릴 TGV(1993년 5월 개통) 및 파리 ~ 런던간 유로스타(1994년 5월 개통)에 맞추어 유라 릴을 1994년부터 개업함(Bertolini and Spit, 1998)

항목	규모	항목	규모
부지 면적	70ha	레저 공간	15,600 m <sup>2</sup>
부지 소유주	릴 시, SEM EuralilleT m <sup>2</sup>	쇼핑센터	31,000 m <sup>2</sup>
사무실	45.750\$	호텔 등	18,600 m <sup>2</sup>
회의/전시장	18,600 m <sup>2</sup>	주차장	18,600 m <sup>2</sup>
주택	575가구	주차장	53억 프랑(70%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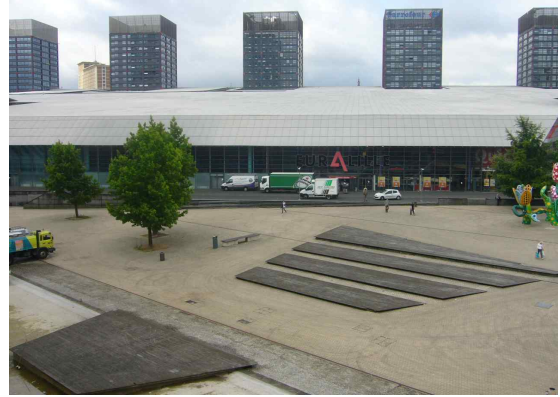
자료 : Bertolini and Spit (1998)



대형 문화공간 그랑팔레



유라릴 역 내부



유라릴 광장과 업무빌딩



SEAM



유라릴 옆 외곽순환도로



유라릴 인근 주거단지 1



유라릴 인근 주거단지 2(개발 진행중)



## IV. Lyon 리옹

### 1. Lyon Parc Auto

리옹 시내 공공 오픈스페이스(광장, 보행로, 메인스트리트 등) 하부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민관합자 회사로서 리옹시 지하주차장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설립은 민간(대은행, 개발회사 등) 40%, 리옹시 20%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익도 투자비율대로 배분하고 있다. 리옹시 공공공간 정책의 출발은 도심에 차량통행을 억제하는 것이며 통행억제와 더불어 도심거주자의 자동차 소유를 줄이는 것에 있었다. 이를 위해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였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public space를 조성하여 4-5년 전보다 차량이 20% 감소하였으며 중심부의 차량이용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공공공간의 연계로 유명한 리옹시는 자동차 소유를 줄이면서 지하주차장 건설로 지상에 차량통행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데 그 성공요인이 있다 하겠다. 약 20년 전부터 시행한 주요 공공공간 지하의 주차장설치는 미술가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건축가가 구조설계를 한다. 미술가의 작품이 지하주차장 곳곳에 있어 예술과 주차공간이 어루어지고 있다.

#### □ Car-sharing system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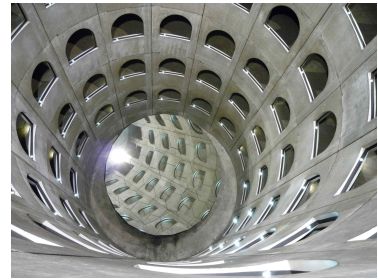
Lyon Parc Auto에서 차량소유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차량이 없는 도심거주자에게 필요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렌트개념의 차량공유체계이다. 신청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인터넷으로 사전에 필요한 날짜와 사용시간을 신청하면 공용차를 sharing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금액과 주유값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sharing 차량은 차량에 별도의 마크가 있으며 주차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일반방문자와 정기이용자 출입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다르게 되어있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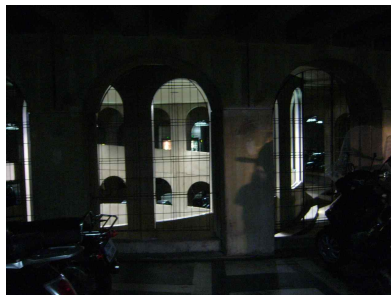
중앙광장과 그 하부의 LPA 지하주차장 1 (마지막사진 : Car-Sharing 표시)



극장앞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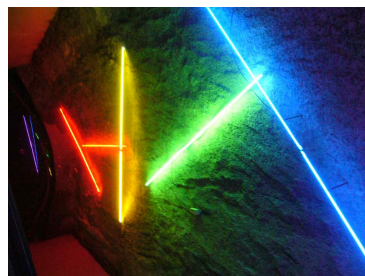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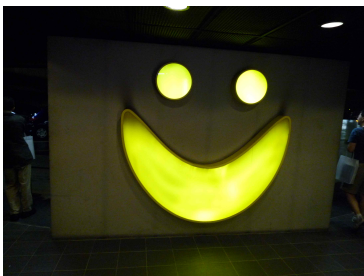


광장의 망원경에서 구조물이 보임..구조물의 정체는 지하주차장



극장 광장 지하주차장

극장광장과 그 하부의 LPA 지하주차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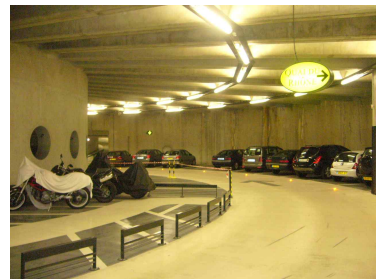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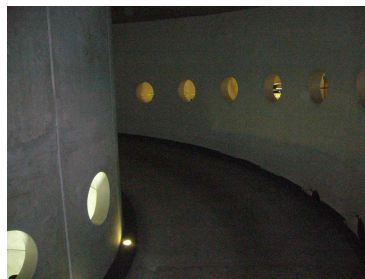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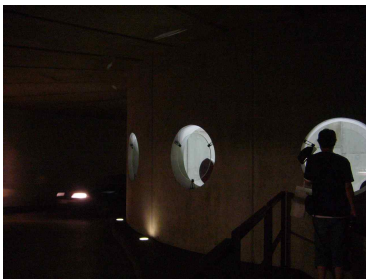


LPA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미술작품들





손강 수변공간 옆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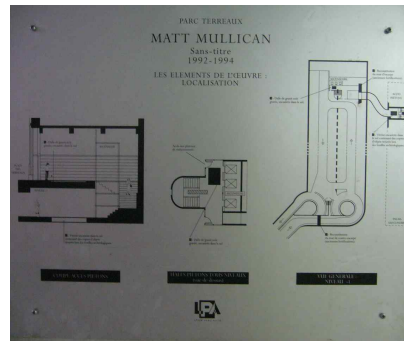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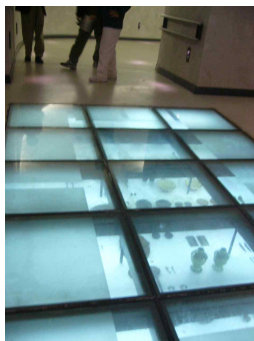


손강 수변공간 옆 광장의 지하주차장 모습



손강 수변공간 옆 광장의 지하주차장에서 손강 수변공간으로 연결되는 평면과 통로

극장광장과 그 하부의 LPA 지하주차장 3



시청앞 광장과 그 하부의 LPA 지하주차장 4



## 2. BAS-PORTS DE LA RIVE GAUCHE DU RHONE

프랑스의 리옹은 론강과 손강이 교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수변중심도시이다. 역사적 중심시가지는 강이 교차되는 합류점에 입지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도시성장이 이루어졌다. 리옹의 도시조직은 론강과 손강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도시는 자연스럽게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 1) 블루를 중심으로 도시발전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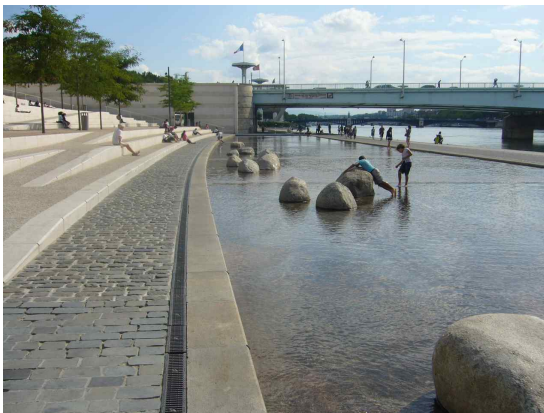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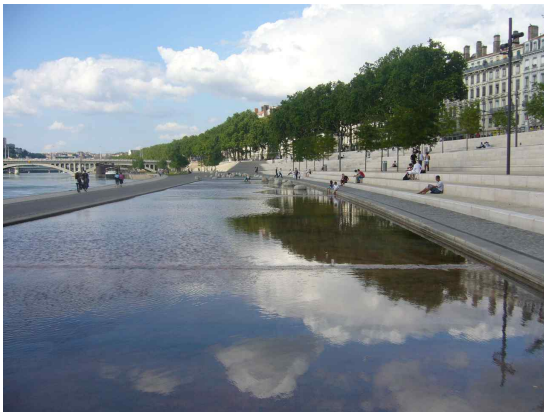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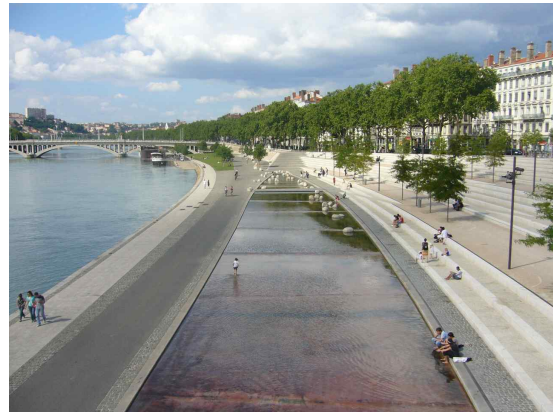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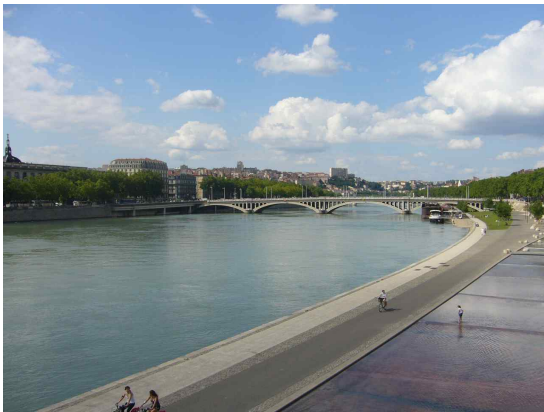
프랑스 리옹은 57개 코뮌 연합체로 구성된 도시이며, 그랜드 리옹 연합체가 도시의 발전전략과 장기구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랜드 리옹 연합체의 도시발전 전략의 주요 목표는 리옹지역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수준을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도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991년 그랜드 리옹 연합체는 지역차원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블루플랜’을 채택하였고 론과 곤강의 주변지역에 대한 ‘블루 인프라 스트럭처’ 정비를 위해 수변공간 정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실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체는 환경보전과 수문공학, 레저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으며, 1998년 블루플랜을 통해 주차장으로 활용된 리옹 남측 수변공간에 대한 정비전략을 마련하여 수변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하고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리옹 남측의 수변공간은 론강의 주요 관광자원인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도시 주 진입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수변 중심의 새로운 도시이미지 창출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미래지향적 디자인 전략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수변이 도시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수변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전략은 기존 도시와 수변공간을 연계하고 수준 높은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개선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프로젝트가 론강 수변 제방정비다. 최근 정비된 론강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면서 도시에서 수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 다양성을 반영하는 수변디자인 전략

론강 수변 제방정비 사업의 총 면적은 10ha, 사업비는 4,400만 유로다. 2002년부터 공모가 시작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 1월까지 공모완료 이후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총 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600대의 주차가 가능한 대규모 주차장이었던 지역이 젊은 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찾아오는 명소로 탈바꿈되었다. 특히 도시에서 강으로 접근성을 강화한 결과 연간 약 7만 명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는 계획적 접근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단순한 디자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기회로 이어지는 수변공간 정비사업이다. 북쪽으로는 황금머리공원과 남쪽으로는 제를랑공원 사이의

약 5km 길이의 제방으로 폭원은 7~70m로 이루어져 있다. 인접한 공간에는 리옹의 도심부가 입지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는 충돌 위험이 없이 각각 분리된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스트리트퍼니처는 비치의자부터 소형의자 등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다. 약 5km에 걸쳐 이루어진 제외지는 8가지의 컨셉트가 적용되는 디자인 전략을 구현하였으며, 보전과 이용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8가지의 색은 연령대별로 각각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이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프랑스의 전통적 도시디자인 컨셉트와도 일맥상통한다. 리옹의 수변공간 정비사업은 프랑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국내 수변공간 정비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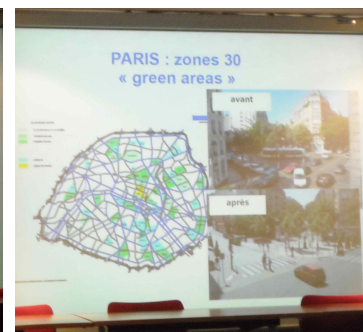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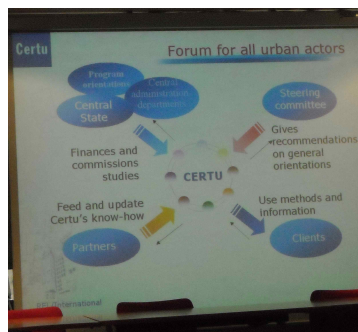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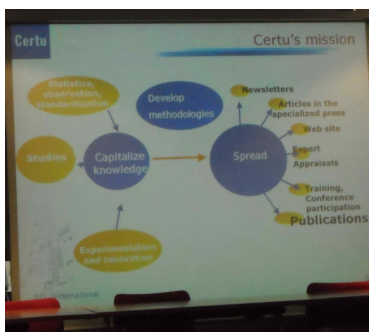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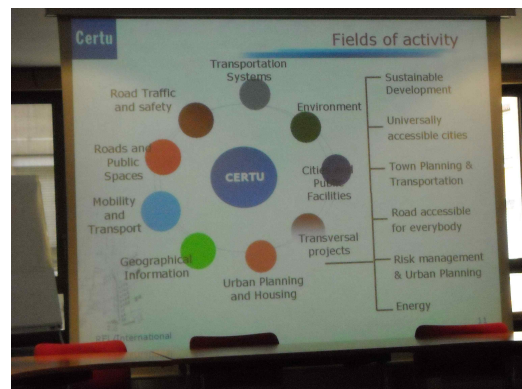


### 3. CERTU(Centre d'Etudes sur les Réseaux, les Transports, l'Urbanisme et les constructions publiques)

프랑스 정부에 의해 수립된 공공건물, 도시계획, 교통, 도로관련 국책연구기관

프랑스 정부 ‘생태,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 부 산하기관으로 다른 정부조직부서와 협력하여 국가와 지자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과 모든 관련된 직업군에 효용이 되는 도시 네트워크, 교통, 도시계획, 공공건설에 관한 연구를 관리하고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건축과 도시에 밀접하게 관련된 3개의 연구분야를 포함하여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의 통계, 조사, 연구, 평가, 기술혁신, 프로그램 생산, 기술 서적발행, 교육 및 정보제공 활동을 통해 지식과 노하우의 축적 및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연구분야	세부조직 (건축/도시연구 관련)
1) 도시계획-주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주거와 정책 그룹</li> <li>- 개발사업과 도시계획 그룹</li> <li>- 도시관찰 그룹</li> </ul>
2) 이동성과 교통	
3) 안전, 도로, 공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와 공공공간 컨셉 및 관리 그룹</li> <li>- 도로와 공공공간 : 공사감독과 프로젝트 그룹</li> </ul>
4) 도시를 위한 시스템과 기술	
5) 환경	
6) 공사감독과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감독과 프로젝트</li> <li>- 공공시설물</li> </ul>



## V. Marseille 마르세이유

### 1. UNITE D'HABITATION A MARSEILLE

#### 1) 개요

1945년 전후 프랑스 재건의 일환으로 마르세이유에 고밀 거대 공동 주거동의 의뢰로 르 꼬르뷔제에 의해 1952년에 완성된 집합주택이다. 도시인이 자신의 주거, 방에서 개인의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독신자로부터 8자녀를 둔 부부까지 6단계로 가족그룹을 형성하여 각 세대의 상황을 반영한 14가지 유형을 만들었다. 한 개의 유닛이 층높이와 단위 유닛폭의 비가 1:1.618로 황금비를 이루어, 이러한 유닛의 반복조합으로 전체입면은 황금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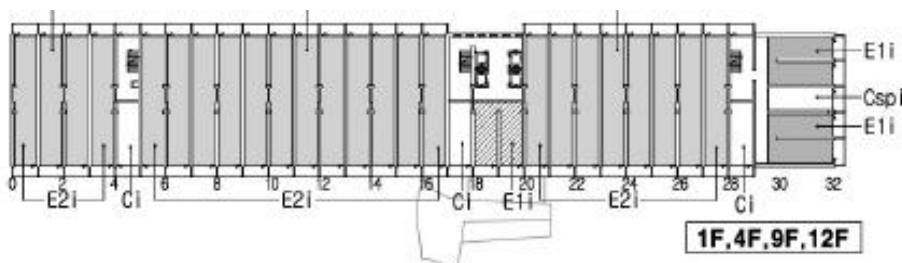
#### 2) 건물 구성방식

#####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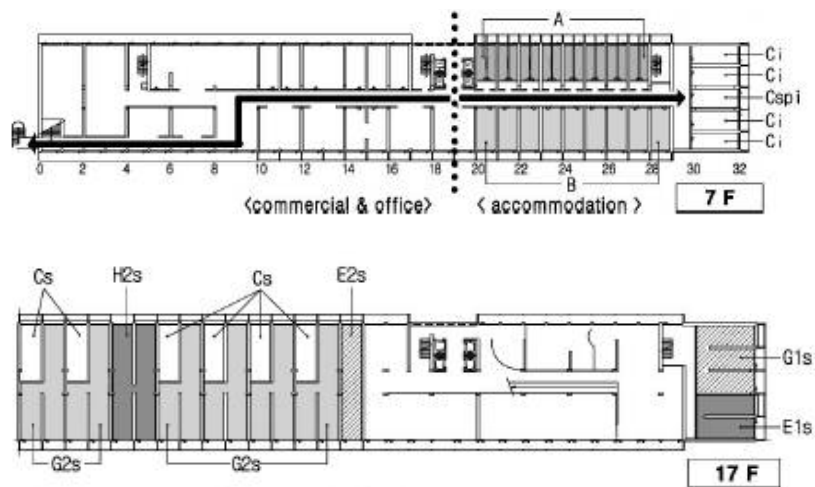
주요 파사드가 남북측으로 주도로로 30도 정도 기울어져 면하고 있다. 이는 자연 조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단일동인 유니테다비파시옹의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서쪽에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북측에 주차장과 테니스 코트를 설치. 주도로측 전면은 모두 공원으로 구성하고 건물 필로티를 통해 서측 지중해와 연속되는 공간을 이룬다.

##### □ 평면 구성 방식

주거 유형은 기둥 간격 419cm로 구성된 17층 규모의 프레임속에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하나의 내부가로를 갖는 3개층을 한층으로 볼 수 있으며, 일률적인 내부 가로와 입구는 동일한 내부 공간을 연상하지만, 실제로 상하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동선구조를 지닌다. 다른층의 내부가로는 사적인 공간으로 진입을 위한 공간일뿐이지만 7,8층은 단층으로 커뮤니티를 위한 완전한 공적 공간으로 일부는 호텔로의 기능을 한다. 7층은 유일한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3개층은 옥상정원, 유치원, 탁아소 등과 연결되는 이유로 공간의 변형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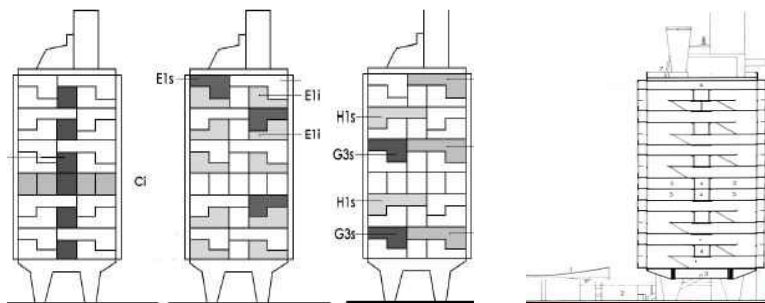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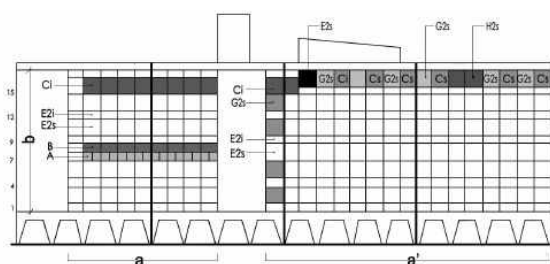
#### □ 입면 구성 방식

단위주거가 모듈러로 결정되었듯 전체도 그 방식에 의해 황금분할 방식으로 설정되었으며, 입면상으로 동일한 홀이 동일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입면으로서는 내부 주거 유형 파악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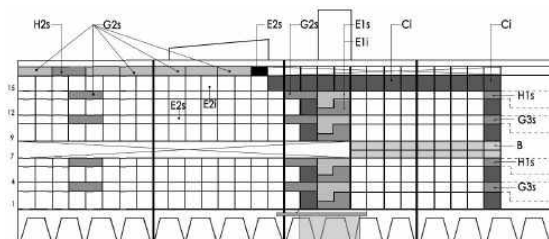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주단면도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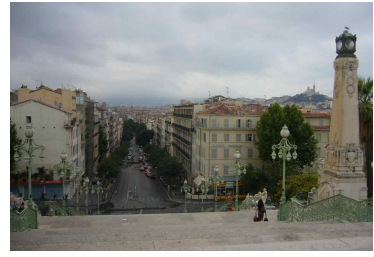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 2. 기타 : 마르세이유 수변지역 재개발 등



마르세이유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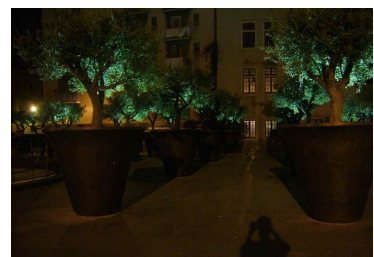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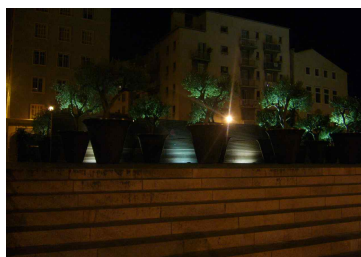
마르세이유 재개발지역과 랜드마크



마르세이유 야간조명



마르세이유 수변지역



마르세이유 공공디자인 및 야간조명

## **VII. 구독 자료 목록**

### **1. 단행본**

- Certu, "Architecture contemporaine en site historique"
- Certue, "LES ZONES DE CIRCULATION PARTICULIERES EN MILIEU URBAIN"
- Certue, "GUIDE ZONE 30 METHODOLOGIE & RECOMMANDATIONS"
- Certue, "L'achevement des ZAC"

### **2. CD**

- Certu, RAPPORT D'ACTIVITE 2007 : CD1 / CD2

### **3. 기타**

- Certu 브로셔 및 정기간행물 샘플